



# 한국문학 중·단편 100편을 ‘덜컹’ 만화로 옮기기 벤처정신으로 모험 즐기는 신성新星



왼쪽부터 권태현 주간, 이숙경 대표, 이파열 과장, 이영란 과장, 원종국 과장, 신승철 부장. 만화로 보는 한국문학 대표작선 3차분 출간을 앞두고 원화를 돌려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책’이란 뜻을 가진 출판사 이가서는 2003년 12월 1일로 창립 1주년을 맞는다. 이제 막 걸음을 댄 신생출판사지만, 이가서 1년의 행보를 짚어보면 녹록찮은 성과를 몇몇 확인할 수 있다. 이가서가 2003년 한 해 출간한 책은 모두 34종. 이가서, 이가서 주니어, 이가서 인문, 이가서 향, 이가서 팝을 통해 한 달 3권 이상의 책을 바지런히 선보였다. 전투적으로 쏟아내는 출판전략이 이가서를 대표하는 개성이라면, 그 개성을 돋보이게 한 데는 이가서가 안고 있는 필진의 몫이 크다. 신세대 문학의 기수로 평가받고 있는 배수아, 전경린, 김종광 씨의 책이 서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과학교사 장하나, <만지일보> 군사전문위원 이성주 씨는 지원군 노릇을 손색없이 감당했다. 소설가 함정임 씨 역시 동화 <내 이름은 나폴레옹>으로 이가서 어린이 도서를 풍요롭게 한 바 있다. 이가서 이숙경(44) 대표의 마당발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들인데, 이 대표는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출판계로 뛰어든, 출판계에서 이색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가서는 종합출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 고집스레 따지고 재는 일 없이 각 분야의 빛깔 있고 향기로운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산스

럽기도 한데 이것이 이가서만의 독특한 색깔이라 할 수 있지요.”

한편 이가서 설립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신작이 준비되면 이 대표에게 맡기겠노라 약속했던 소설가 배수아 씨가 소설탈고를 마친 뒤 이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 경영해 오던 출판사를 접고 잠시 동면을 취하고 있던 참이었다. 이 대표의 동면이 길어질 것을 예감한 배수아 씨는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 아닌 항의를 하게 됐고, 이 대표는 궁색한 변명 없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이가서를 다시 차리기로 작정했다. 배수아 씨의 경장편 <동물원 킷>가 이가서를 만든 진작眞作인 셈이다.

“필진들의 독려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작보다 내실 있는 살림을 꾸려보겠다는 역척스런 마음은 모두 그분들 덕입니다. 획기적인 아이템과 콘텐츠가 없다면 가치없이 사라져야 하는 냉혹한 곳이 출판시장인데, 이가서가 안정적인 경영을 버리고 벤처경영을 고수하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이가서를 드러내는 데 있어 벤처만큼 정확한 표현은 없다. 전략적이다 못해 전투적이기까지 한 ‘벤처 이가서’의 뚝심에 놀라는 이들이 많은데, 최근 이가서는 큰일 하나를 ‘덜컹’ 또 저질렀다. 한국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단편 100선을 만화로 출판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메이저 출판사를 통해 이번 기획이 얼마만큼 유효할 것인가를 타진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얼마간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무모한 일’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가서는 1퍼센트 가능성에 몸을 내던지기로 결정했다.

“출간동의의뢰서를 만들어 50명의 작가에게 보냈습니다. 답신되기까지 긴장된 시간이었죠.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출간동의의뢰서를 받아보지 못한 몇몇 작가를 제외한 43명의 작가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작가들의 반응이 이리 할진대 더 망설일 이유가 없더라구요. 실력 있는 시나리오 작가를 제외하고 역량 있는 젊은 만화가들을 수소문했죠. 권태현 주간과 신승철 부장의 힘이 컸습니다. 출판시장에서 침체된 문학을 만화라는 가공을 통해 새롭게 확대 재생산해보자는 아이디어는 두 분이 제시한 거죠.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돈을 벌어보자는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었어요. 두 분이 소설을 쓰시는 분이라 그만큼 애정을 갖고 생각한 일이지요.”

중심 스토리가 명확하고 인물의 캐릭터가 살아 있는 장편소설을 만화로 옮기는 일이라면 얼마간 쉬울 법도 하련만, 작가의 호흡과 문체, 상징과 메타포를 특질로 한 중·단편을 만화로 옮기는 일은 만만찮은 작업이었다. 그런 탓에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를 작업해 보겠다며 선뜻 덤벼들었던 어느 만화가는 몇 날 밤을 끙끙 앓다 연락을 두절하고 자취 없이 사라진 해프닝도 있었다.

“곤혹스러운 일임은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가서가 더욱 나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는 생각 안했으니까요. 전경린 씨의 작품 《바닷가 마지막 집》 같은 경우는 내레이션을 활용해 오히려 독특한 만화형식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를 얻었어요. 만화와 가장 행복하게 만나는 작품이 완성될 때면 더없는 보람도 느낍니다. 박완서 씨의 《옥상의 민들레꽃》이 그런 경우죠.”

이가서의 ‘만화로 보는 한국문학 대표작선’은 현재 1, 2차분이 출간되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할 책이라는 교사들의 입소문이 대단한 한편, 전작을 읽은 독자들은 어느 작가의 이런 소설이 어땠겠냐고 제의해 오며 기획의 즐거움까지 더불어 누리고 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꽃》,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가 지난 10월 1차분으로 선보였고, 하성란의 《곰팡이꽃》과 전경린의 《바닷가 마지막 집》이 지난 11월 2차분으로 선보였다. 인물의 캐릭터를 제대로 살려내고, 중·단편 문학의 특질을 훌륭하게 소화한 책을 한번 손에 잡으면 하염없이 페이지가 넘어간다. 불가피한 각색을 염려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소설과 만화가 만나는 지점이 이리도 인상적일 수 있을까, 절로 무릎을 치게 만든다. 근간으로 서정인, 김채원, 박상우, 구효서, 최윤, 한강, 천운영 등 실력 있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란단.

“완성된 책을 보고는 많은 작가들이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계획했던 100권이 모두 완성되면 독일어로 번역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학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계기로, 나아가 이것으로 한국문학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역시 이가서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단체에서 이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많은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가서의 서거만큼 독특한 색을 가진 서가를 만나기란 드문 일이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출판사 이가서가 있어 오늘 우리는 문화의 낮شم을 누리고 있다. 벤처정신으로 무장된 이가서의 그 도저한 모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된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